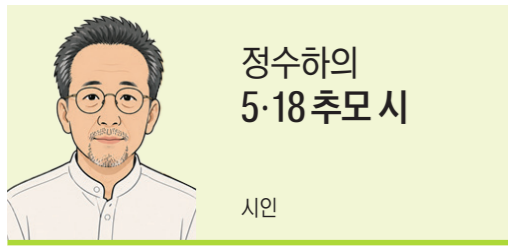


검은 땀의 잉크, 우리들 노래의 피



정수하의 5-18 추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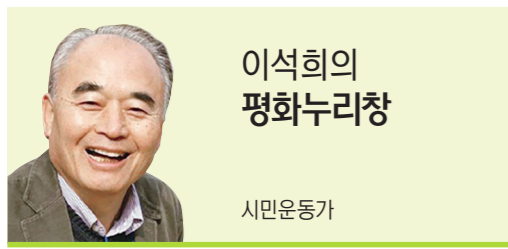
시인

절름발이 소녀의 낡고 슬픈 무쇠베를이었다
달 아래 네 노래의 불씨들을 촘촘히 지나가는
저 흰 손은
남동 뒷골목 주린 등짝 하얗게 아픈 손등에 달
이 뜨면 먼 안 남쪽나라 강 뚝 옛 어머니 집에 하
얗게 셋바람 뜨면
열두 자 종이 폭에 이글이글 진달래꽃 수를 놓
았다 전라도 땅 남동 뒷골목이었다
참새 하나 꿈 짓는 양철지붕 붉은 벽돌담에
꺼말게 탄 등불 기름 베로 더덕더덕 기운 저 그
림자들 흠바닥에 끌려 역새처럼 뻗신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소녀는 남을 뺨아 판을 짜고 물먹은 잉크덩이
휘휘 저어 로우리를 돌리며
나는 새도록 툰바퀴 가죽벨트에 달빛을 감
아베를을 곱렸다

달거덩 달경 실 피 뺨아 체인을 타며
삼베 같은 종이 폭 길게갈게 네 시들을 자았다
달 아래 병들고 지쳐도 기계이빨 양다물고
네가 부르던 옛 싸움의 노래가 줄줄이 공장바
닥을 적셨다
검은 잉크 땀이 달을 따라 온밤을 별절계 먹칠
을 했다 아아 지금은 더욱 멀고 애끓는 남도길
소녀의 고향은 한 애비 달구질에 속 일만 타던
강나루터 철로 변이었다
여름날 소쩍새가 옛 투사들의 돌무덤을 치솟
아 날고 망월동 가는 외딴 길섶 칙칙한 지하벽바
다 내 형제들 두 손의 망치질도 끔기고 푸른 만신
창이로 뒤척대는
저 고풍한 매장 아래 터벅터벅 다시 네가 딱갈
나무 숲처럼 은밀하게 뿌리를 밀고 가는 밤마다
남동 뒷골목 절름발이 소녀는
달아빠진 무쇠베를 달거덩 달경 세월을 짜고
나는 갱지 위에 네 시를 불꽃처럼 심어나갔다
수십 년 때 목은 쪽발이나라 재산반입품
철사 끈으로 조이며 툰바퀴 밀고 당겨 목줄
을 이어나갔다 절름발이 내 소녀는 집집한 종이
문지 전등불 아래 얼굴마저 녹아내렸고
나는 모든 절망과 사랑의 노래들을 자판으로
찍어놓았다 남동 뒷골목이었다

절야의 달은 양철지붕 붉은 담 벽을 느릿느릿
흐르고 낡고 슬픈 베를에 앉아 절름발이 소녀는
새도록 진달래꽃 수를 놓았다
가난이 죄일세라 죄일세라 공장바닥 한구석
염니 잃은 핏덩이 조카 놈을 품에 안고 베를을
타며 얼어붙은 기름밥에 석탄불을 적셔 삼키며
세월을 꿰뚫다
창 너머 푸른 셋빛 저 뜰 조각들 하나 둘 종이
폭에 엮어나갔다
보아다오, 내 형제들, 민중의 시인이여너는 언
제나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달빛 젖은 잉크로 저
베를에서 조금씩조금씩 길러졌다
밤마다 두툼한 땀과 눈물의 옛 책갈피마다
따뜻한 별과 우렁찬 힘의 무기들이 다듬어져
새겨지고
네 노래는 젊은 일꾼들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거대한 뿌리가 되어갔다 전라도땅 남동 뒷골목이
었다 낡고 슬픈 베를에 앉아
절름발이 소녀는 밤마다 박해받는 세상의 자
식들을 노래했다 철사 줄로 꿰낸 고물인쇄기계
툰바퀴 달거덩 달경
머나먼 옛 고향집 어머니 길 따라 네 시들을
종이폭에 짜고 나는 저 달 아래검은 기름피를 뚝
뚝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걷는 평화누리길



이석희의 평화누리길

시인운동가

5월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날을 정하여 기
념하는 달이니 우리 어린이들과 어떻게 하여야
할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즐거운 놀이를 할
까, 아니면 장난감을 사 줄까? 요즘에는 우리 아
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설 좋은 놀이터에
서 뛰놀며 풍부한 장난감 속에서 풍요롭게 자라
고 있으니 그것도 이상하다. 그럼 무엇으로 할까?
교회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상의하여 5월 2
일, 임진강 평화누리길을 걷기로 했다. 어린이와
어른을 합해 37명이 함께 길을 나섰다. 전체 코
스는 길지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고려해 임진
강-장산전망대-화석정 구간, 약 8km만 걷기로 했
다.
걷기는 화석정에서 시작되었다. 화석정은 임
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품은 곳이다. 1592년 일본
군이 부산에 침입했을 때 조선은 대비가 부족했

다. 선조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울곡의 10만 양병설을 외면하고, 일본
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일축
한 것도 선조였다. 결국 일본군은 충주 탄금대에
서 조선을 꺾고 불과 22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
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는 길에 임진강을 건넌
데, 그 나루가 바로 화석정 아래 임진나루였다.
강물은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듯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장산전망대 앞에 보이는 초평도 너머 민통선
안에는 고구려 때 축조된 덕진산성이 마주하고,
오른 편에 해마루촌이 보이고, 멀리 북한 땅 개성
과 송악산이 아스라이 보였다. 초평도는 굽이굽
이 흐르는 임진강의 급한 유속으로 형성된 퇴적
층으로, 장마 때에는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기는
하중섬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면적은 알기 어렵
지만 섬 안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큰 기
러기, 흰꼬리수리 등 도래하는 철새들의 천국이다.
분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지만
새들과 자연에게는 천국이니 역설이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지나 임진강에 도착했다.
그곳은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다. 임진강 철교,
자유의 다리, 멈춰 선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지하병커 등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

침을 떠올리게 했다.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다. 대통령은 부
산으로 후퇴했고 시민들은 적의 지배 아래 놓였
다. 휴전선에서 서울이 지적에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적에게 함락될 수 있었겠는가?
화석정에서 본 임진왜란의 악몽이 6-25 전쟁과
겹쳤다. 대비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절
감했다.
임진강 망배단 앞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
게 말했다. “우리는 500년 전 임진왜란과 76년 전
6-25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
리나라가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
을 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힘입
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니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교류하
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통일을 이
루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아
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크게 “네”라고 대
답했다.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는 분단 시대를 살아가
는 우리가 민족의 현실을 이해하고, 평화를 지켜
내야 하는 나의 책임(民族指南)을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가정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평화의 터전이며 보루이다.

사 설

‘아이 잘 키우는 도시’ 과천에서 배워라

건강·안전·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사회·국가·지방정부 책무

가정의 달인 5월에 눈에 확 들어오는 소식이
있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의 평가
결과 과천시가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최근 초록우산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아동
성장환경지표’를 공개했다.
아동성장환경지표란 아동이 성장하기에 가
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
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지
아닌지를 분석해놓은 지표다. 그것도 정부 관
련기관이 아닌 초록우산이란 민간 기관이 아
동 성장 여건을 종합 평가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초록우산 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지난
1년간 실시한 8만 7851개의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 성장 환
경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4개 영역(건강·교육·
복지·지역사회)의 지표 12개를 선정, 종합점수
를 매겼다. 이를테면 ‘건강 영역’의 경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비율, 아동 우울 진료 환자
비율, 아동 사망 중 자살 비율을 산출했다. ‘교
육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기초체력 미달 비율,
중학생 수학 학습성취 하위등급 비율, 중학생
영어 학습성취 하위등급 비율을 평가했다. 또
한 ‘복지 영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
모 가정 수급가구 비율, 지역 학업중단 비율을
따졌으며, ‘지역사회 영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미취학아동 유치원 수용 비율,
아동인구 비율 증감 수준을 평가했다.
과천시는 종합점수 91.34점을 받았다. 2위인
서울 종로구 88.01점보다 3.33점이나 많았다. 2
위에서 10위까지 종합점수가 1점~0.4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
우 큰 점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도내
에서는 하남시가 83.64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지만 동두천시(63.97점)는
부산 중구(61.03점)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67.68점)도 취약지역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동성장환경지표 전국 1위를 차지한 과천
시는 타 지방정부보다 앞장선 아동정책을 펼치

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아
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
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가 펼치는 아
동 정책 가운데 ‘아픈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
이 있다.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
염된 12세 이하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용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가 질병에 걸렸지
만 여러 가지 형편상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병원
에 함께 가주거나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 기준 없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
원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
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
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취우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교통비와 장기근
속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역량 강화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
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
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은 한층 강화되고 있
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 점
검을 하고 있다. 키즈카페와 여름철에 운영되
는 물놀이 시설 등 총 157개소가 대상이다. 최
근에는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식
정보타운 내 근린공원4를 숲과 자연을 주제로
재정비해 개방했다. 휴식공간 ‘숲고요’, 어린
이를 위한 자연형 놀이공간 ‘자연상상터’를 조
성하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
게, 그리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우리사회와
국가, 지방정부의 책무다. 다른 지역들이 ‘아이
를 잘 키우는 도시’ 과천시의 사례를 눈여겨보
고 배우길 바란다.

경기신문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www.kgnews.co.kr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는 설 주 간	표 명 구 최 인 속	인 색 인 편 집 국 장	김 회 준 최 인 진	인 천 본 사 사 장 인 천 편 집 국 장 직 대	신 소 형 민 중 소
-------------------	----------------	------------------	----------------	--------------------------------	----------------

본사: 대표전화: 031-268-8114
☎ 16953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30, 3층
수원본사: 대표전화: 031-268-8645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광고문의: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93 / 구독신청: 전화 031-268-8335 /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1,0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57-4459 / 팩스 031-268-8393 / 이메일 opinion@kgnews.co.kr

New Best Chairs
세계속의 우리의자 **DSP**

사무용/가정용/업소용/생활용품 생산 전문업체

플라스틱 강동의자 장점

-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강동의자는 오래 사용해도 통이 찌그러져서 쿠션이 내려 앉거나 잘 안빠지는 현상이 없음.
- PP로 제작되어 가볍고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음.
- 식당의자와 보조의자, 미술학원의자, 화장대의자 등 용도가 다양함.
-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개인용품 보관이 편리함.

사출전문 제조기업

25년간 생활가구개발에 주력해 온 DSP는 최신식 기계설비와 자동화된 공정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품질과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중국,남미 외 14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 가구회사에 OEM생산,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DSP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 및 다수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관 우수업체에 선정되는 등 고객님께 믿음을 드리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300(울검정 패드유) 드림체어 등받이 쿠션형 드림체어 일반 쿠션형 드림체어 등받이 야외용 드림체어 일반 야외용

구매문의 032-562-9771 / 010-2245-0580 주소 인천시 서구 파랑로 466번길 82 (주)디에스피 www.dspmail.co.kr / www.dspworld.co.kr